

누구를 위한 ‘젠더평등’ 인가?

영국공공정책연구소(IPPR), ‘유리천장 깨기’ 젠더평등 방식 비판

2013.05.10 | 최정은 | jechoi@saesayon.org

1. ‘젠더평등’ 을 위한 새 화두
2. 노동시장에서 여성
3.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4. 문화생활에서 여성
5. 시사점

새사연 추천보고서는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Tess Lanning, Laura Bradley, Richard Darlington and Glenn Gottfried(2013),
"Great expectations: exploring the promises of gender equality", IPPR.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1. ‘젠더평등’ 을 위한 새 화두

사회 불평등의 오랜 논의 중 하나가 ‘젠더’ 문제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젠더불평등은 계급, 연령, 인종 등의 차별에다 성 차별적 태도와도 얽혀있어 사안의 복잡성이 더 크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지수’ 를 만들어 매년 국제 비교를 하며 젠더평등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젠더평등이 공론화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대다수 여성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젠더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여성 개개인의 배경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직종, 직위, 임금수준 차이도 커지면서, 성차별로 인한 격차뿐 아니라 여성들 내 차이도 증가해 젠더평등의 논의 범위나 이슈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IPPR(공공정책연구소)가 펴낸 연구보고서 “큰 기대: 젠더평등의 약속을 탐색” 을 통해, 젠더평등의 실현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높이기, 국회의원 수 늘리기, 고위직 임원 늘리기 등 ‘유리천장 깨기’ 식 접근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영국 현대사회가 급변해오면서 여성 개개인의 성장배경이나 경험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젠더평등의 이슈가 ‘유리천장 깨기’ 로 모여져 다수 여성들이 직면한 최저임금이나 무임금 돌봄 노동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젠더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들도 ‘성평등 사회로 바뀌야 한다.’ 는 그 목표에 비해 관리 지표나 정책수단이 다수 여성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여성들 내에서의 경제적 이질성이 커지고, 여성들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들 내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커져 전체적으로 가구 불평등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신광영,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4).

IPPR의 최근 보고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열망과 기대 변화를 탐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젠더 정치의 우선순위 논쟁을 촉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남성의 게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젠더 정치’ 가 필요하다” 고 꼬집는다. 분석 자료는 1958년 국립아동발달연구, 1970년 영국 코호트(집단) 조사, 젠더 관계와 무·유급 노동의 추이를 탐색하는 2011년 사회가계패널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의 16 가정의 여성 50인과 집단 및 개인별 세미 면접을 병행해 연구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 개인의 궤적이 오늘날 여성들의 경험과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사회의 변화를 말해준다면, ‘유리천장 깨기’ 접근 방식은 젠더평등의 지배적인 논쟁이며

형식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협소하다고 결론짓는다.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문화생활에서 여성 등 세 분야에 걸쳐 여성의 현실을 녹아낸 젠더평등을 위해 새 화두들을 던져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하단에 위치한 여성들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고, 여성노인의 문제도 함께 풀기를 권한다. 가정에서 돌봄 책임은 부모휴가나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을 개선할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돌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더 건강한 여성의 대표성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여성의 역할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2. 노동시장에서 여성

1980~90년대 영국 여성의 학업성취, 고용, 소득 수준은 남성에 견줘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고위직 임원 진출이나 여성 정치인의 양적인 증대 등이 젠더평등의 주요한 잣대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IPPR의 최근 연구는 오히려 젠더평등을 위한 법적인 개혁이나 형식적인 측정이 오해를 줄 수 있으며, 여성해방의 현실은 보다 복잡하고 더 불평등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80년대 이래로 보통의 남성과 보통의 여성들 간의 차이가 개선된 것은 사회이동의 정체, 경제적 불평등 심화, 노동 의사의 극적인 변화로 가능했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공적, 사적 서비스 영역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성장은 여성들에게도 기회였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남성의 고용과 임금이 줄고,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어떤 가족에게 2인 생계부양자는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였으며, 단순히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와 열망의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는 제조업 일자리는 사적 서비스 영역의 저임금, 저숙련 노동으로 대체되었다.

고위층 여성이 늘었다고 반드시 일하는 대다수 여성의 고용여건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 임금 수준이 좋은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사적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로 대체되었고, 이는 저렴하고 유연한 일자리에 다수 여성들로 채워졌다. 이 과정은 '여성의 빈곤화'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통계상으로 현재 41~42세 58년생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35%이다. 70년대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29%로 줄어든다. 반면에 여성들 내 임금불평등은 남녀간 차이보다 더 크다. 58년생 전문직 여성은 미숙련 여성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더 벌고, 70년생 전문직 여성은 그렇지 못한 여성과 임금격차는 80%로 더 커지고 있다. 교육수준 또한 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58년생 대졸자 남성은 14% 더 벌고, 58년생 대졸자 여성은 34%를 더 벌고 있다.

젠더평등과 여성권 논쟁은 부분한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뒷받침할 구조적 제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같린다. 젠더불평등의 주요인이 차별과 성적 태도이지만, 유일한 부분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위층 여성은 부족하고 대다수 여성이 저숙련 노동에다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지만, 모두 돌봄과 부분적인 양육을 병행하고 있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대학을 가고 출산을 미루면서도 노동시장에서 이전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양육책임을 병행하는 전문직 여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는 다수의 대학 졸업 여성들이 출산 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IPPR의 통계 분석을 보면, 자격이 미흡한 여성들이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경우 양질의 일자리나 일할 기회도 더 얻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고위층 여성을 많이 만드는데 주안을 둔 젠더평등의 방식은 여성의 일 경험이 양극화되고, 남성의 힘과 계급이 다른 위치에서도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는다.

3.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여성의 임금은 성별과 교육 수준에도 영향을 받지만, 양육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산을 미룬 여성들의 임금은 향상되었으나, 일찍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임금은 나빠지고 있다. 본 연구의 통계에 따르면, 58년생 여성이 첫 아이를 25~32세 사이에 낳은 경우,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과의 임금격차는 12%이지만, 18~24세에 첫 아이를 낳은 58년생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과의 임금격차는 17%로 커진다. 70년생 여성을 살펴보면, 첫아이를 18~24세에 낳은 경우 아이가 없는 여성과 임금격차는 20%로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직업적 지위와 여성의 연령, 출산은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임금 노동경제에서 여성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많은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가정 안의 무임금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70년대 이래로 남성은 평균적으로 가정일과 양육에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학력 남성의 경우가 그렇다. 더욱이 최근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 안에서 일과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남녀에게 공식적인 장벽이 똑같이 없어졌을 때, 여성들의 선호가 드러나는데 많은 여성들이 가정 중심의 선택을 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선택 논란은 사회 안에서 엄마의 역할을 이상화하는 이들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일을 지지하는 이들로 갈라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부모들이

많으며, 보통은 일과 돌봄의 적절한 지점을 찾으려고 한다.

IPPR의 양적 조사를 보면, 모성과 젠더규범에 대한 여성들의 시각은 양분화 되고, 복잡하며 모호하다. 어떤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여성과 엄마로서 스스로를 위치하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본다. 그러나 다다수의 남성처럼 대다수 여성들도 일과 가정을 함께 구성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 오늘날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공적 양육 서비스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남편이 양육과 다른 가사일 책임을 나누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정말 보람되지만, 또한 힘들고 특히 시간과 돈이 부족하고 더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경우는 더 힘들다. 3세대 모두 양육을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우 사회적 고립과 낙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느낀다. 공동체 기반의 양육서비스는 부모가 일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부모가 만나 교류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고립감을 줄인다. 양육비용이 늘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 특히 조부모가 중요한 양육 지원자가 된다는 의미는 갖는다.

남편과 양육 책임을 더 많이 나누면 양육에 대한 여성의 압박을 완화하고,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영국의 정책 환경은 현재 이를 돕고 있지 않다. 최근 가족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긴 부모휴가와 아빠출산휴가의 결합이나 3세 이하가 이용할만한 보육시설 부족으로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모델만 유지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 아젠다는 근로자를 어떻게 가족 돌봄의 책임을 병행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사적인 문제로써 개인의 선택과 양육책임의 프레임은 가정과 사회 모두 책임을 나눠야한다는 '공공성(public)'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보육정책의 향상을 이끌 수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고용 중심의 시각은 건강한 가족 생활을 과소평가할 위험도 안고 있다.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이 양육 문제의 집단적 해결의 중심이어야 하고, 남성은 가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4. 문화생활에서 여성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동적인 아내와 엄마는 적극적이고 성적으로 강한 여성이 대세를 이루며 바뀌었다. 더 자신감있는 여성성의 표현은 여성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강한 여성의 묘사는 종종 김빠지는 것으로, 여성들의 선택은 여전히 쇼핑, 결혼, 아이들을 중심으로 좁은 편이다.

IPPR의 연구는 공식적으로나 문화생활에서 여성의 묘사나 매체나 대중문화가 부추기는 가치와 시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인터뷰에서 매체와 주류 문화가 전통적인 젠더규범을 강화하고, 여성이 되는 길을 좁히고 있는 반면, 여성의 현실적 삶은 거의 대표하지 못한다고 걱정했다.

매체, 광고, 연예산업이 여성의 열망을 연출하고, 부추기는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잡지 안의 유명 여성의 외모는 이상하고, 여성들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소수 인종 여성들은 백인 미인의 기준이 지배적이라고 걱정한다.

문화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논쟁은 최근 새로운 차원의 이슈다. 모든 연령, 세대, 배경의 여성들은 대중문화에서 성적으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다. 여성잡지, 유명한 문화나 외설물 안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은 비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십대들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삶에서 더 건강한 여성의 대표성이 더 많아야 하며, 그 관점은 고정관념을 깨는 틀로, 오늘날 세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사점

유리천장 깨는 젠더평등의 방식은 정치 논쟁의 주류를 이루며, 형식적이지도 법적인 평등에 주안을 둔 좁은 시각이다. 더 의미 있는 젠더 정치는 모호한 논쟁—즉, 어떻게 보통의 여성이 보통의 남성에 견줘 잘 할 수 있는가—보다는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정책과 지위로 경제, 사회, 정치가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 경제: 개인의 영향력에서 집단적 힘으로

형식적이고 법적인 젠더평등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평등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 능력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 개인의 권리나 발전에 주안을 두기 보다는 세상을 만드는 숨은 그룹의 집단적 힘을 더 원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젠더 정의에 관심을 두는데, 젠더평등이 과연 더 많은 여성이 임원이 되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거나, 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기업 지배구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면 어떨까하는 점이다.

젠더의 논쟁이 어떻게 노동시장의 밑바닥 근로자의 불안이 급증하게 되었는지—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 여성이 직면한 과제를 포함해—와 노년기 다수 여성들을 위한 함의를 치열하게 따져야 한다. 이의 해결책은 여성의 일자리 질과 지위를 높여야지,

단순히 생활임금과 훈련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다. 연금의 세금 완화에 쓰일 재정은 저임금 노동자 지원에 배분되어, 이들이 퇴직 이후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1970년대 여성자유운동의 전성기에 여성주의자들의 주된 논쟁은 경제 관련해서 노동 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근로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금융, 지배구조와 소유권의 민주적인 형태-즉, 협동조합이나 상호 소유형태-가 더 나은 직장과 윤리적 사업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 근로자는 특정 규모 이상의 모든 회사 임원을 대표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근로자가 사적으로 소유한 회사가 정리될 때 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힘의 노력으로 젠더 고정관념이나 대상화에 대해 제조업이나 매체산업이 더 반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사회: 어려운 선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서 공통의 문제를 집단적 해결해야

양육을 해결하는 것은 젠더나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핵심적인 논쟁이다. 현재 여성들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과 가정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 간에 갈등을 하고 있다. 모든 가족은 일과 양육 간의 균형을 이뤄야하지만, 현재의 선택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가족과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어떤 가족은 더 일하면서, 또한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정에서 더 해야만 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아빠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북유럽에서는 부모휴가를 나눠 쓰고 관대한 급여를 지급하고-적어도 더 많이 버는 쪽 월급의 2/3 정도, 휴가를 사용하거나 그 기회를 상실하는 규정을 뒤 부모가 유급휴가권 사용을 늘렸다. 영국도 점차적으로 이와 비슷한 모델로 바꾸고 있고, 아이를 둔 가족에 현금혜택을 주고-아동세제혜택 등-아동과 성인까지 지급하고, 한 살부터 양질의 사용가능한 보육시설, 학령기 아동의 아침과 방과후 활동 등을 연계해 엄마와 아빠가 일과 돌봄을 함께 수행하도록 뒷받침한다.


경제 생산은 우정이나 가족생활의 희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개혁 아젠다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정치: 정부 주도의 변화에서 민주적 개선으로

최근 몇 년간, 힘 있는 여성 정치인이 다른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날 엘리트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영국 정치의 전문화로 인해 정치

적 논쟁이나 우선순위가 서민들의 경험과 동떨어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주류 정치에서 젠더평등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가 부족해서다. 영국 정치 지형의 민주화나 다양성을 담으려는 노력으로 젠더를 넘어 남성과 여성까지도 대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이고 경제 기관이 민주적으로 개선되면 다양한 배경의 남녀 정치인이 배출되고, 그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기반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여성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핵심 기관이었지만 이들이 관심을 두는 젠더 정치는 정부 주도의 변화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변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가족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광고를 반대하면서 과도한 상업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다양한 진보적 대안들이 가능하다. 건강한 정치는 항상 폭넓은 사회적 힘의 결집에 의존한다.

결론적으로, 젠더 정치의 주요한 논쟁은 여전히 ‘여성 임원’ 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다. 젠더평등을 재정의해 논쟁을 바꿀 수 있고, 서로 다른 배경의 여성들에 초점을 두면 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더 노력하게 된다. 여성들이 남성의 게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젠더 정치’ 가 필요하다. 

2013년 새사연의 '추천 보고서' 목록

2013년 5월 1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추천 보고서	2/18	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2/21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김병권
추천 보고서	2/27	국제 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이은경
추천 보고서	3/4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3/5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최정은
추천 보고서	3/6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김수현
추천 보고서	3/14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김병권
추천 보고서	3/20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이은경
추천 보고서	4/4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김수현
추천 보고서	4/8	금융위기의 대안 신용 협동조합	이수연
추천 보고서	4/19	2020년까지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이수연
추천보고서	5/6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이은경
추천보고서	5/10	누구를 위한 '젠더평등' 인가?	최정은